



급식 시간 종소리

상안초 6-1 우은성

솔솔

맛있는 냄새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반 복도까지 온다.

어느새
모두 모두 맛있는 냄새에
흠뻑 젖어있다.

맛있는 냄새가 오고부터는
시간이 달팽이 같다.

짜각짜각

드디어 급식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딩동딩동 디디동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

우리 학교 종소리가

급식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

우다다다다

친구들은 손 씻는 일도 까먹었는지

종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급식실로 뛰어 들어간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운동장까지 들리겠다.

급식 시간의 종소리가

우리들을 춤추게 만든다.